

제15회 학술심포지엄

여행기로 만나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  
-마스다 고조 보고서를 중심으로-

- 일 시 : 2022년 11월 16일 (수) 오후 3시
- 장 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 주최·주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후 원 : 광주광역시



##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50	등 록	
15:00	개회 및 인사말	
<b>SESSION I 주제발표</b>		
<b>사 회 : 노성태(남도역사문화원장)</b>		
15:10 - 16:10	여행기로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정성일(광주여대 교수)
	구한말 일본인의 시선에 반영된 전라도(호남여행기를 중심으로)	노영기(조선대 교수)
	여행기사 속의 면직물	조광철(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b>SESSION II 주제별토론</b>		
16:10 - 16:40	차철욱(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이향준(전남대 교수) 임선화(광주교육대 강사)	
17:00	종합정리 및 폐회	

## <목 차>

발표1> 여행기로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05
발표2> 구한말 일본인의 시선에 반영된 전라도	17
발표3> 여행기사 속의 면직물	27
토론1> :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37
토론2> : 이향준 전남대 교수	43
토론3> : 임선화 광주교육대 강사	49

**발표 1 :**

**여행기로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정 성 일**

(광주여대 교수)



# 여행기로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정성일(광주여대 교수)

## 1. 머리말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그보다 100년 전인 1888년 5월 12일(조선 4.2.) 일본 민간단체인 부산상법회의소 서기(書記) 마쓰다 고조[松田行藏] 등 일본인(민간인)의 전라도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때 조사한 내용이 3년 뒤인 1891년 4월 출판되었다.

마쓰다 고조의 이 여행기는 1880년대 말 호남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이 여행기의 시기는 1876년 조선과 일본의 수호조약 체결 후 12년이 흘렀으나, 임오군란(1882년)과 갑신정변(1884년) 직후로, 아직은 동학 농민 운동(1894년)이 일어나기 전에 해당한다. 이 여행기의 지은이는 일본 미야자키현[宮崎県] 사족(士族) 출신으로 부산상법회의소에 소속되었다가,<sup>1)</sup> 1896년에는 '경성(京城)'에 주소를 둔 일한통상협회(日韓通商協會) 회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sup>2)</sup> 1907년과<sup>3)</sup> 1909년에는<sup>4)</sup> 통감부(統監府)의 포상을 받는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순응하면서 조선으로 건너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던 일본인이다.

마쓰다 고조의 여행기는 저술 동기나 목적, 내용 등이 일본(일본인)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1880년대 말의 호남 지역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여행기의 학술적 가치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sup>5)</sup>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타자(他者)의 시선으로 바라본 당시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마쓰다 고조의 여행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무라 겐지[木村健二], 2000, 「메이지 시대 일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조선 인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한일공동연구총서 2』, 343쪽.
- 2) 스가와 히데노리[須川英徳], 2001, 「日本人が見た朝鮮の村々-松田行藏 『朝鮮國慶尙忠清江原道旅行記事』-」, 『アジア遊学』 32, 일본 勉誠出版, 55-56쪽.
- 3) 『통감부 공보(統監府公報)』 제24호(1907년 9월 23일 발행)에 “(1907년 8월 29일 통감부에서) 경성 거류민단 심상고등소학교 신축비로 금 50(圓)을 기부한 공로가 인정되어 목배(木杯) 1개를 하사받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京城居留民團立尋常高等小學校新築費トシテ金六拾圓寄附候段奇特ニ付爲其賞木杯壹個下賜候事).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 4) 『통감부 공보(統監府公報)』 제126호(1909년 11월 6일 발행)에 “(1909년 10월 2일 통감부에서) 경성 거류민단 교육기금으로 50원(圓)을 기부한 공로가 인정되어 그 상으로 목배(木杯) 1개를 하사받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明治四十二年十月京城居留民團教育基金五拾圓寄附候段奇特ニ付爲其賞木杯壹個下賜候事).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 5) 1920~30년대 전라도 지역 여행기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전 7-전라도·제주도-』(국학자료원, 2013)가 참고가 된다. 이 가운데 1925년 차상찬(車相瓚, 1887~1946)의 「전라남도 답사기」와 1925년 하산(霞山) 권현섭(權賢燮, 1876~1962)의 「영암행」이 주목된다.

## 2. 마쓰다 고조의 호남 여행기 개요

### 가. 여행기의 제목과 저술 의도

원제목은 '경상도 전라도 여행 기사와 농업과 상업 현황 조사록'(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竝ニ農商況調査錄)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행기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경상도와 전라도 '여행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두 지역의 농업과 상업 '조사록'이다. 여행 기사가 앞에 있고 조사록이 뒤에 있기는 하지만, 이 여행기의 저술 의도는 뒤에 나오는 조사록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이 여행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농업과 상업을 조사하기 위한 여행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마쓰다 고조[松田行藏]는 "일본 상인들이 부산 등 경상도 지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선을 조선의 서부로 옮겨서 장래의 상업 기회를 전라도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호남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나. 여행기의 편집인과 출판 연도

이 여행기의 편집인은 마쓰다 고조라는 일본인이다. 그가 저자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쓰다 고조는 '경상도 전라도 여행 기사와 농업과 상업 조사록'의 편집인이다. 즉 이 책은 마쓰다 고조 한 사람만의 여행(조사) 결과물이 아닌 익명의 복수 인물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얻은 성과로 짐작된다.

이 책의 맨 뒤에 나오는 판권 부분을 보면 그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 책의 발행소는 일본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선국(朝鮮國) 부산항(釜山港) 상법회의소(商法會議所)'이며, 발행자는 동 상법회의소의 회두(會頭)인 오하시[大橋法]로 되어 있다.<sup>6)</sup> 그리고 '편집인'으로 마쓰다 고조의 성명이 적혀 있다. 인쇄소는 일본 도쿄[東京] 교하시구[京橋區] 지쿠치[築地]에 있는 '도쿄 지쿠치 활판 제조소'라는 이름의 인쇄소였다(東京築地活版製造所, 東京市 京橋區 築地 2-17).

이 여행기의 원고 작성이 완료된 것은 1888년(고종 25, 메이지 21) 10월이다. 편저자가 책의 첫머리에 범례를 적고 그 시기를 '1888년(明治 21) 10월 상순[上浣]'이라고 쓴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여행과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보다 4~5개월 전인 5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42일 간)이다.

일본인 상업회의소인 '부산상법회의소'<sup>7)</sup>가 도쿄에 있는 인쇄소에서 이 책을 출판

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책의 맨 뒷장 판권 부분에는 활자가 아닌 '손글씨'로 '發行者 右 會頭 大橋 法'이라 적은 한 줄이 삽입되어 있다. 이 책의 인쇄가 완료된 뒤에 출판일도 '明治二十四年 4月 2日 出版'이라고 써넣은 흔적이 보여 주목된다.

7) 조선인 상업회의소는 1908년 동래상업회의소가 가장 빠르다. 일제 강점기에는 그것이 1916년 부산상업회의소가 되었다. 1928년에는 '공업'이 추가되어 부산상공회의소가 되었으며, 광복 후에도 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부산상공회의소 백년사(1889~1989)』, 1989, 부산상공회의소, 102쪽). 부산역사문화대전, 조준현의 부산상업회의소 해제 참조.



한 시기는 1891년(고종 28, 메이지 24) 4월 2일이었다. 1888년 10월 이 책의 원고가 완성되어 1891년 4월 인쇄와 출판이 완료되기까지 약 2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 다. 마쓰다 고죠의 다른 여행기

마쓰다 고죠는 전라도 여행(조사) 1년 전인 1887년(고종 24, 메이지 20)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54일 간) 경상, 충청, 경기, 강원 등지를 이미 조사한 경험이 있었다. 그것이 7개월 뒤인 1888년 6월 '조선국 경상 충청 강원도 여행 기사, 농업과 상업 조사표 첨부(朝鮮國慶尙忠淸江原道旅行記事 農商調査表付)'라는 책 이름으로 간행되었다(①). 이 책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조선국 부산포 상법회의소 서기(書記)' 마쓰다 고죠[松田行藏]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sup>8)</sup> 이것은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 민간인이 조선에 관하여 조사하여 출판한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sup>9)</sup>

마쓰다 고죠는 첫 번째 여행기(조사보고서) ①이 인쇄되기 한 달 전인 1888년 5월부터 경상도를 출발하여 전라도로 들어와 여행하며 6월까지 조사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경상도 전라도 여행 기사와 농업과 상업 현황 조사록'(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並ニ農商況調査錄)이라는 두 번째 여행기가 1891년 4월 출간되었다(②). 조선 여행기(조사보고서) ②(337쪽 분량)가 조선 여행기(조사보고서) ①(253쪽 분량)보다 분량이 더 많다.<sup>10)</sup> 그리고 둘 다 '보고자'가 마쓰다 고죠였으며, 두 건 모두 부산상법회의소(釜山商法會議所)가 발행하였다.

### 3. 마쓰다 고죠의 여행기에 보이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

#### 가. 마쓰다 고죠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인식

마쓰다 고죠의 여행기(조사보고서)를 읽다 보면 당시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인식과 달리, 의외로 그가 조선인에 대한 '멸시'나 '차별'을 드러내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를 비롯하여 일본인 연구자들도 지적한 바 있다.<sup>11)</sup>

그런데 조선과 일본의 문화가 서로 다른 점도 있었고, 실제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생활 수준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했던 당시 현실에서 볼 때, 마쓰다 고죠가 조선과

8) 이 책의 원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다음을 참조. 스가와 히데노리[須川英徳], 2001, 「日本人が見た朝鮮の村々-松田行藏 『朝鮮國慶尙忠淸江原道旅行記事』-」, 『アジア遊学』 32, 일본 勉誠出版.

9) 기무라 겐지[木村健二], 2000, 「메이지 시대 일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조선 인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한일공동연구총서 2』, 343쪽.

10) 기무라 겐지(2000), 343쪽.

11) 梶村秀樹, 1977, 『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 龍溪書舎, 49쪽; 기무라 겐지(2000), 343쪽; 스가와 히데노리(2001), 58-61쪽.

조선인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가 과연 호의적인 것뿐이었을까? 예를 들면 남원부(南原府)에 관한 설명 가운데 “사람들의 기질은 대체로 교활(狡獪)하고, 또한 무뢰(無賴)하다. 특히 관리 같은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는 썼다. 이것을 보면 마쓰다 고쥬가 실제로 느꼈을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 나. 마쓰다 고쥬의 여행 일정

일본인 상업회의소인 ‘부산(항) 상법회의소’의 서기(書記)를 맡았던 마쓰다 고쥬는 1888년 5월 초 경상도 부산에서 출발하여 전라도로 향하였다. 부산(5.3.)→동래(5.3.)→김해(5.4.)→창원(5.6.)→함안(5.7.)→진주(5.8.)→단성(5.11.)→산청(5.11.)→함양(5.11.~12.)을 거쳐 전라도 지역으로 들어왔다.

그의 호남 여행이 처음 시작된 곳은 운봉현이었다. 1888년 5월 12일(원저는 모두 일본력임), 조선은 음력 4월 2일이었던<sup>12)</sup> 이날 마쓰다 고쥬는 경상도 함양에서 전라도 운봉으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인 5월 13일까지 운봉에 머물렀던 그는 그 뒤 남원부(5.14.)→임실현→전주(5.15.)→익산군(5.17.)→함열현→임피현(5.18.)→옥구현(5.19.)→만경군→김제군→금구현(5.20.)→태인현→고부현(5.21.)→흥덕현→고창현(5.22.)→장성부(5.23.)→창평현(5.24.)→광주→남평현(5.25.)→나주→함평현(5.28. ?)→무안현(5.28. ?)→영암군→강진현(5.29.)→해남현→진도군(5.31.)→강진현(6.1.)→장흥부(6.2.)→보성군(6.3.)→낙안군(6.5.)→순천부→광양현을 거쳐 갔는데, 동년 6월 7일(음력 4.28.) 구례군이 마지막 일정이었다. 1888년 5월 13일(운봉)부터 6월 7일(구례)까지 호남 여행을 마친 그는 하동(6.8.)→곤양→진주→사천(6.10)→고성(6.11. ?)→진해(6.12.)→창원→김해→동래를 거쳐서 6월 13일 부산 일본인 거류지로 돌아갔다.

그런데 마쓰다 고쥬가 다녀간 곳과 방문 일자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면 만경군(萬頃郡)을 만정군(萬頂郡)으로 적기도 하였다. 이것은 경(頃)과 정(頂)의 왼쪽 변에 있는 한자를 잘 못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임피현(臨陂縣)을 임파현(臨波縣)으로 잘못 적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조사표(調査表)가 작성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영광현(靈光縣)이 그런 경우이다. 아마도 이것은 마쓰다 고쥬가 영광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짐작된다. 흥양현(興陽縣)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제주(濟州) 또는 탐라(耽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행지(조사지)에 대한 조사표가 작성된 곳은 마쓰다 고쥬가 직접 방문한 지역이라

12) 마쓰다 고쥬는 책의 ‘범례’에서 “표 가운데에 적은 월일은 조선력(朝鮮曆)이며 일본력이 아니다. 아울러 기사 가운데에 나오는 월일은 모두 일본력이다.”고 밝혔다. 마쓰다 고쥬가 말한 ‘조선력’은 아마도 당시 조선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던 시헌력(時憲曆) 즉 태음태양력(음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공식적으로 완전한 서양력이라 할 수 있는 양력(陽曆) 즉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96년이다(단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문서에서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1888년(고종 25)부터 청의 연호를 없애고 개국 기원과 양력을 사용해 왔음). 그런데 그 뒤에도 조선에서 양력의 사용이 순탄하지 않았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고 해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즉 마쓰다 고죠가 호남의 모든 지역을 여행(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표가 작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1888년 시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다. 마쓰다 고죠가 조사한 호남의 시장(市場)과 상품.화폐 경제

마쓰다 고죠는 책의 첫머리 범례(凡例)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기사(記事)의 문체(文體)를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실지(實地) 산천(山川)의 모양과 촌락(村落)의 위치(位置), 체재(體裁) 등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상(通商)의 일을 맡은 사람[估客]의 길잡이로 쓸 수 있게 하여 행상(行商)을 하려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조선의) 내지(內地) 촌락의 체재(體裁)라든가 상업 활동의 실태 등을 알려주는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으니, 문체의 즐렬함을 나무라지 않으면 다행이겠다.”고 썼다. 여기에서 그의 여행기(조사보고서) 서술과 편찬의 방향을 살필 수 있다. 즉 마쓰다 고죠는 ‘조선의 서부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라고 하는 목적 달성에 초점을 모으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판단된다.

마쓰다 고죠의 조선 여행기(조사보고서)는 앞부분은 지리 정보, 뒷부분은 경제 정보가 담겨 있다. 그가 책의 첫머리(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지로 직접 가서 산천(山川)의 모양과 촌락(村落)의 위치(位置), 체재(體裁) 등을 눈으로 확인한 것”을 지역마다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거리와 호구(인구), 농업과 상업의 실태, 생활 수준과 옷차림 등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에 이르기까지, 주민 개인의 성향과 지역 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어 놓았다. 각 지역을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표로 정리하여 다른 지역과 쉽게 비교 분석할 수도 있게 해 놓은 점이 가장 돋보인다.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1888년 시점에서 호남 각 지역의 자연과 인문 환경에 대하여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래에서는 마쓰다 고죠의 관심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서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상인들이 눈을 조선의 서부로 옮겨서 장래 상업 기회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마쓰다 고죠는 임피현(臨陂縣)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런데 화물을 보내는 곳은 모두 인천(仁川)이며, 부산으로 우회한다고 한다. 부산항(釜山港) 상무(商務)의 관할이 광활함이 정말로 이와 같다. 그런데도 어찌 상업의 형세가 부진하여 화물이 유통되지 않는다고 재질거리는 것은 아닌지? 적당히 관할 지역 안에서 나는 물건을 주워 모으기에 급급하는 요즘에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제발 일본 상인들이 널리 눈을 서부로 옮겨서 장래의 상업 기회를 꾀하기를!(밑줄-인용자)

마쓰다 고죠는 전주(全州)의 시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주의 상업이 번성한 모습을 그는 일본 오사카와 견줄 정도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마쓰다 고죠가 전주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정리한 조사표의 ‘비고란’에서 다음과 같이 자

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전주는 마치 일본 오사카[坂地]와 비슷한 중요한 곳이라서 상인들이 폭주하여 상로가 대기관(大機關)에 해당하는 지역임. 그런데 현지에서 산출되는 물건은 없고, 단지 먼 곳 또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화물이 몰려드는 이곳 시장에서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송함. ... 3도(道)의 상인이 이곳에 모여서 상업 기회를 얻고자 싸우며 사람들이 몰려옴. 항상 그 수가 몇천에 이름. 이에 상세(商勢)는 날로 왕성하며, 수입하는 화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니, 당목(唐木)과 한랭사(寒冷紗) 같은 것은 늘 공급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조선산(朝鮮産) 중에서 목면, 면주, 생사(生絲), 베[布] 같은 것은 광주 나주 진주에서, 종이류는 진주와 그 밖의 지역에서, 소금은 옥구 고트머리에서, 모두 전주로 모여들고 있음. 장이 열리는 당일에는 상인들이 먼저 구매(購買)하여 그것을 각자가 목표로 삼는 장소로 전송하여 그 물건을 직접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현(現) 산지(産地)로 되돌려 다시 원 주인[本主]의 손에 들어가는 일도 있어서, 오히려 일본 오사카[坂地]와 다를 바가 없게 됨. (밀줄-인용자)

시중(市中)의 점포는 남문 밖에서 (시작하여) 서부에 걸쳐서 그 위치를 잡고 항상 몇십 채가 개점을 함. 각각 종류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지방[紙房], 면방[綿房], 또는 약방(藥房), 미방[米房] 등 각각 그 상표(商標)를 내거는 것은 서울(王城) 종루가(鍾樓街)와 비슷한 점임. 상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어 상업이 번영을 이루고 화물의 운반이 활발하니, 다른 곳의 개시(開市) 당일보다 오히려 번잡해짐. 이것은 곧 상세(商勢)가 번성하여 대체로 상인들이 중요한 권력을 차지하였고, 또한 유사한 사례가 달리 없음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함.

전주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산물은 오직 소가죽뿐이며, 오곡 같은 것은 이 고장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본디 소가죽은 모두 육로를 통해서 남원부(南原府) 또는 진주부(晉州府)로 전송하고, 남원은 하동부(河東府) 두치강(豆恥江)에, 진주에서는 남해(南海) 조창(漕倉) 연안을 거쳐서 모두 부산(釜山)으로 배를 이용하여 회송한다고 함. 그런데 임실(任實) 고산(高山) 익산(益山) 금구(金溝) 여러 현(縣)의 같은 물품, 즉 소가죽도 같은 행적을 거칠 것으로 보임.

성냥[摺附木]은 일본식과 중국식이 혼합[日支混合]되어 특별히 두드러진 느낌은 없음.

## 라. 마쓰다 고쵸가 경험한 호남의 주막(酒幕)과 가옥 등 생활 문화

문화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의식주 등 생활양식을 문화라고 정의한다면, 마쓰다 고쵸의 호남 여행기에는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의 의복(衣服), 음식(飲食), 주거(住居) 등 1888년 시전의 호남 문화를 살필 수 있는 기록이 담겨 있어서 주목된다.

의생활(衣生活) 측면에서는 마쓰다 고쵸가 작성한 조사표의 '빈부 정도와 복장 상태[貧富ノ度 服裝美惡]' 항목이 참고가 된다.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그는 각지 주민들의 생계와 옷차림에 주목하였다. 그가 옷차림에 주목한 것은 당시 호남 사람들의 의복 문화를 살피려는 것보다는 일본산(또는 일본이 수입한 외국산) 직물류가 전라도의 각 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팔리고 있는지(또는 앞으로 팔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장에 나타난 지역별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 1> 호남 여행기에 보이는 지역별 빈부 정도와 복장 상태(1888년 조사)

No	지역	부유한 정도	복장 상태	No	지역	부유한 정도	복장 상태
1	운봉	중	청결하지 않음	14	나주	상	그다지 화려하지 않음
2	전주	상	화려하고 아름다움	15	합평	중상	불결하지 않음
3	익산	하	거칠고 추함	16	무안	중하	(기록 없음)
4	함열	중	불결하지 않음	17	영암	하	아름답지 않음
5	임피	중	거칠거나 나쁘지 않음	18	해남	중상	청결함
6	옥구	하	청결하지 않음	19	진도	상	(풍속이 졸렬함)
7	만경	중	조잡하지 않음	20	강진	상	천하지 않음
8	김제	중	불결하지 않음	21	장흥	중하	(기록 없음)
9	금구	중	불결하지 않음	22	보성	중상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음
10	태인	중	거칠거나 나쁘지 않음	23	순천	중상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음
11	흥덕	상	(교만을 부리지 않음)	24	광양	중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음
12	고창	중	거칠거나 나쁘지 않음	25	구례	상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음
13	장성	상	불결하지 않음				

자료 : 松田行藏, 『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並ニ農商況調査録』, 부산상법회의소, 1891.

식생활(食生活) 측면에서는 마쓰다 고죠의 여행기에서 상세하게 서술된 정보가 거의 없다. 그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마흔 곳이 넘는 '주막'을 언급하면서도 그 주막 주변의 호구와 위치를 적은 것 외에는 달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마쓰다 고죠가 여행(조사) 중에 여러 곳의 주막을 거쳐 갔으며, 심지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가 조선의 주막이 제공한 음식이나 잠자리 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된다.

<표 2> 마쓰다 고죠의 여행기에 보이는 주막의 명칭과 규모(1888년 조사)

No	지역	명칭	호	위치
1	운봉	화수(花水)	40	황산 서쪽 기슭
2	운봉	여원재[女院峙]	10	운봉현에서 4km
3	임실	평마리[坪樽]		土里에서 5~6백m
4	임실	슬재[瑟峙]	10	舟川村에서 서쪽 1km
5	전주	오분목(烏分木)	7~8	南古山城山 북쪽
6	전주	신창(新滄)	8~9	청하산(靑鰈山) 6~7백m
7	익산	선돌리[立石里]	20	
8	함열	월운정(月云亭)	5~6	소룡동(巢龍洞) 동남쪽
9	만경	(서문 밖)	10	서문 밖
10	금구	신창(新場)		원평(院坪)
11	태인	승치(昇峙)		승현(昇峴)
12	태인	행화정(杏花亭)	5~6	고부현 1km
13	흥덕	태동(兌洞)	20	선돌 마을[臥石村] 동남 5~6백m
14	흥덕	장성(長城)	3	서산(西山) 남쪽
15	장성	단암(丹岩)	40	청암역 남쪽
16	장성	가덕교(加德橋)	30	월평촌(月平村)
17	장성	용당(龍堂)	10	밤실 마을[栗室村] 동쪽
18	창평	쑤다리[艾橋]		무등산 북쪽
19	창평	?		대실 마을[大谷村], 창평과 광주 경계
20	나주	신동(申洞)		소성산(小星山)
21	나주	병정(井丁)		고산촌(高山村) 2km, 나주와 영암 경계
22	무안	삼거리[三包]		장성현(長城峴) 서쪽, 무안과 합평 경계

23	영암	누리재[黃峙嶺]	10	울치(栗峙) 1~2백m, 영암과 강진 경계
24	강진	사거리(四巨里)	8~9	만덕산(萬德山) 골짜기
25	강진	정리(井里)		변시 고개[邊市峴] 동쪽 골짜기
26	해남	행치내(行峙內)	5	행치내(行峙內)
27	해남	덕계교(德系橋)	30	명당치(名堂峙) 2km
28	해남	남리(南利)	30	
29	해남	소정(小亭)		옥매산(玉埋山) 숲속
30	해남	삼지원촌(三支院村)		바닷가
31	해남	송산(松山)		우안치(牛案峙)
32	보성	?		벗재[柳峙]
33	보성	군머리=군두(軍頭)	4~5	상울어촌(上栗於村)
34	보성	지경(地境)		보성과 홍양 경계
35	순천	동부원(同府院)	2	도제암(道諸庵) 7~8백 미터
36	순천	못뱅이[累方里]	3	주령촌(朱令村)
37	순천	왜동(倭洞)	5~6	
38	순천	솔원(率院)	4	솔원현(率院峴)
39	순천	구곡(九曲)		난교암(難橋岩) 동쪽 아래
40	순천	부흥치(富興峙)	2	새터마을[新基村]
41	순천	시변점(市邊店)	3~4	문척강(文尺江) 3~4백 미터
42	구례	주치(舟峙)	5~6	광촌(廣村) 동쪽
43	구례	구용(九用)		오미동(五美洞)

주: 빈 칸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음.

자료: 松田行藏, 『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並農商況調查錄』, 부산상법회의소, 1891.

주생활(住生活) 측면에서는 마쓰다 고쵸가 여행기 속에서 군데군데 언급한 부분이 참고가 된다. 전주를 비롯하여 임피, 금구, 광주, 무안, 보성, 순천, 등 각지의 가옥과 도로 사정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호남 여행기에 보이는 지역별 가옥 구성과 주거 생활(1888년 조사)

No	지역	구분	기술 내용
1	전주	생계	체법 고상(高尚)하여 작은 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磊落] 풍조가 있다.
		가옥	가옥의 구성은 조금 크게 지으려 한다.
		도로	도로는 모두 평탄하여 대체로 지나가기가 쉽다.
2	임피	생계	생활은 부유한 모양이나, 그다지 사치하는 풍조는 아니다.
		가옥	가옥의 구성은 빈부를 떠나서 모두 넓고 견고하다.
		가옥	와동(瓦洞) <sup>13)</sup> 은 조금 부유한 편이어서 가옥의 구조가 크고 아름답다.
3	금구	시장	원평(院坪)은 평상시에도 5~6호의 일용품 점포가 있다.
		가옥	대체로 가옥 구성이 크고 상업의 형세가 활발하다.
4	광주	생계	일반 주민의 생계는 매우 좋다고 한다.
		가옥	가옥의 구성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5	무안	관아 건물	궐문을 서쪽과 남쪽 두 곳에 설치하였다. 둘러싸고 있는 중앙에는 높은 망루를 만들었다. 여러 망루에 낙풍루(樂豐樓) 면성루(縣城樓)라고 써놓은 편액을 걸었는데, 가옥은 대개 낡아서 부서질 것 같았으며 쓰러져서 없어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
6	보성	가옥	강동촌(江洞村)은 양반이 거주하고 있어서 가옥의 구성이 매우 크다.
7	순천	생계	생업은 농업과 상업이 반반이며, 생계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다지 교만하거나 오만한 모습은 없다.
		가옥	가옥의 구성은 벼슬아치든 일반 주민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매우 크고 깨끗하다.
		도로	길은 평탄하며 넓다. 단지 좁은 장소로 한정을 지어 말하자면 군데군데 바위가 불쭙 튀어나온 곳이 있을 뿐이다.

자료: 松田行藏, 『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並農商況調查錄』, 부산상법회의소, 1891.

그런데 마쓰다 고쥬가 언급한 위의 내용이 당시 호남 주민의 생활 문화 전부를 모두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접촉한 사람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며, 그가 방문한 지역도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위의 조사 결과를 절대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 5. 맺음말

마쓰다 고쥬는 여행기를 쓰면서 호남의 역사(또는 사적)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그의 여행기 저술 목적이 무엇보다도 '시장조사'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그가 유독 운봉현의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가 비문의 전문을 인용하면서까지 상세하게 여행기에 기록한 점은 매우 특이하다. 그는 비문 원문을 옮겨 적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 "본디 황산(荒山)은 임진왜란[원문은 文祿의 古戰場-인용자] 때 싸움터였는데, 조선[원문은 韓-인용자]의 도독(都督) 유씨(劉氏)가 우리 군[원문은 我力軍]을 어렵게 한 곳이라 전해지고 있다. 즉 화수산의 서쪽 기슭에 비(碑)가 있는데 그 구성이 매우 크다. 앞에 하마비(下馬碑)가 세워져 있다. 그 비문을 베껴서 이를 맨 뒤에 옮겨 적었다(밑줄 인용자)."고 그는 해설까지 달아 놓았다.

황산대첩비에 대한 마쓰다 고쥬의 기술 내용을 보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① 임진왜란 때 싸움터라고 한 것은 고려 말의 오기(誤記)이며, ② 왜군[일본군] 즉 왜구(倭寇)을 어렵게 한 것은 '유씨(劉氏)'가 아니라 이성계(李成桂)였다. 이처럼 마쓰다 고쥬는 황산대첩비와 관련된 역사 사실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가 유독 운봉의 황산대첩비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운봉을 첫 조사(여행) 지역으로 삼은 것도 황산대첩비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그의 여행기에 전혀 언급이 없지만 앞으로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sup>14)</sup>

마쓰다 고쥬의 여행기에 호남의 문화가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역시 그의 여행기 저술 방향이 처음부터 '시장조사'를 지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여행기의 군데군데 각지 주민들의 복장 상태와 가옥의 형태, 주막 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1880년대 말 시점의 호남 문화에 대한 분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소재 마을로 1914년 3월 1일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북일면의 고봉리 일부와 통합되어 아산리에 편입.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14) 마쓰다 고쥬가 일본 미야자키현 사족(士族)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그의 선조가 임진정유왜란 때 남원 근처에서 일본군에 붙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피로인(被擄人) 또는 포로(捕虜)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 2 :**

**구한말 일본인의 시선에 반영된  
전라도**

**-호남여행기를 중심으로-**

**노 영 기**

(조선대 교수)



# 구한말 일본인의 시선에 반영된 전라도

## - 호남여행기를 중심으로 -

노영기(조선대 교수)

### 1. 머리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조선을 '생명선'으로 규정하고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일본의 신정부는 근대국가체제의 확립, 시장경제의 법제적 틀 마련, 근대산업기술의 이식을 통한 공업화 등을 추진하고, 이외의 다른 근대적 법제와 사회제반의 구축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부 300년 동안 이어온 봉건제도를 단기간에 타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메이지 유신의 혁명에 의해 과증하게 된 지조부담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와 유신에 의해 종래의 전통적인 기반을 잃어버린 士族 계층이 일으킨 내란을 몇 차례 겪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내란이었던 西南戰爭이 1877년 유신정부에 의해 진압되면서 봉건제도의 타파는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자본주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1877년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이지 정부는 산업자본의 축적을 위해 식산흥업정책을 실시하며 자국의 산업화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주변 국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중 일본이 처음 선택한 것은 조선이었다. 에도 말기 정한론(征韓論)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조선은 대륙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더없이 욕심나는 곳이었을 것이다.<sup>15)</sup> 이 같은 일본의 의도는 공적 기구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뿐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공통된 인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개항 때부터 일본인들이 쉽사리 한반도 내륙으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1876년에 개항하였으나 거류지 내 사방 10리에 한정되었다. 이 조항이 1882년 8월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에 따라 사방 50리까지 조선 정부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885년 이후부터 일본인들은 여행통행증만 소지하면 조선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sup>16)</sup>

기록의 정확성과 마쓰다 고조가 당시 일본인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는

15) 이미숙, 「한일합방 이전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 배경에 관한 연구 - 나가사키현(長崎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협동과정, 2007, 1쪽에서 개인용.

16) 박양신, 「19세 말 일본인의 조선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상」, 『역사학보』 제177집, 108쪽.

차치하더라도, 마쓰다 고죠가 남긴 기록은 1888년 전라도에 대한 한 일본인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서는 그의 '호남여행기'에 나타난 전라도, 그중에서도 전라남도에 대한 기술을 통해 인식을 살펴보겠다. 다시 말해 1888년 전라도를 돌아다닌 뒤 여행기를 편찬한 마쓰다 고죠의 시선을 통해 구한말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이 전라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보겠다.

## 2. 마쓰다 고죠의 여행기 편찬의 목적

마쓰다 고죠(松田行藏)는 부산상법회의소 서기로 있으면서 비단 전라도만이 아닌 한반도의 많은 지역을 다니며 현지의 사정을 기록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전라도 지역은 그가 1888년 여행한 뒤 일종의 조사보고서이다. 그가 여행기를 작성한 의도는 '호남여행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여행하고 난 뒤에 지형과 지세, 호구, 주요 산업 등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 상인의 內地行商에 필요한 내륙 촌락의 지리와 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sup>17)</sup> 목적 때문이었다. 근대 이후 출현한 여행기가 제국주의 팽창과 더불어 출현한 "역사적으로 오염"된 장르"였다는<sup>18)</sup> 점을 고려한다면 마쓰다 고죠의 여행기도 이 같은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마쓰다 고죠의 전라도 여정은 운봉현으로부터 시작되어 전북을 거쳐 전남으로 향하는데, 그 첫 출발지인 운봉현 인근에 세워진 '황산대첩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다. 그가 황산대첩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비가 훼손된 점에서 볼 때 그 기록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 고부를 지난 그가 처음 입성한 전남 지역은 장성(부)이었다. 그의 '호남여행기'에는 공통되게 지형과 지세 및 호구 등을 촘촘하게 적고 있으며, 동시에 조선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행 다니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 예를 들어 '찰방(察訪)'과 같은 벼슬을 기록하며 "역참에서 공문을 주고받는 일을 관장하며 장성부에 속한다."와 같이 그 임무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장성부 서술에서 "생업은 상업이 5분의 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농업을 전업으로 삼는다. 생계는 부유하여 대체로 사람들이 조금 뛰어나다. 사람

17) 김건일, 「1880년대 후반 외상(外商)의 내지침투와 유통구조 변화 - 일본상인의 조선시장 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21, 17쪽에서 재인용.

18) 한정선, 「'배제'와 포섭'의 수사학 : 일본인 조선여행기와 근대문화제국주의의 양상」, 『일본학연구』 제3집, 2011, 60~61쪽에서 재인용.

들의 기질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외국인과 잘 접촉한다. 토지는 가는 곳마다 비옥하여 곡식이 잘 여물고, 물 사정이 더욱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관심사가 조선의 산업경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여행 도중에 조선인들과 접촉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산업경제와 수출입품의 가격, 시장, 운임 등을 종합한 조사표를 꼼꼼하게 기술한 것은 그의 여행 목적이 단순하게 풍경을 서술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쓰다 고죠가 부산 상업회의소 서기라는 자신의 지위에 따라 향후 조선의 내륙에 진출하려는 의도에서 사전에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아래의 표는 모든 고을에 똑같이 적용된 표는 아니지만 마쓰다 고죠의 여행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성부(長城府)			
기후	평순(平順)	넓이	동서 3리, 남북 7리
면수	15면	호구	3천 여, 중심부 3백 여
호구 증감	흉년, 유행병으로 200여 호 감소	빈부 정도 복장 상태	조금 부유한 편, 복장이 불결하지 않음
생업	상업이 5분의 1이고, 나머지는 농업 <sup>19)</sup>	사람들의 기질	따뜻하고 부드러움
논밭	3,800여 결	논밭 가격	논: 상 15관문, 중 9관문, 하 3관문 밭: 상 3관문, 중 2관 100문, 하 1관 200문
논밭 매매법	전례(前例)	벼 수확량[300평]	상 9섬, 중 6섬, 하 4섬 5말
잡곡 수확량[300평]	콩 1섬 6말, 보리 1섬 6말	곡물 품질	좋음
비료	잡초와 나뭇잎, 기타 사랍과 소의 똥 종류	경운법	소 쟁기질 3회, 모내기 앞두고 가래로 고르기
유지 관리 횟수	모내기 뒤 잡초 뽑기 3회	파종 전	3월 10일 무렵 종자 골라 (물에 담그기) 4~5일 건져서 하룻밤을 둠
파종 시기	3월 15일 무렵	모내기 시기	이른벼=올벼 4월 말, 늦은벼 5월 중
수확기	(이른벼) 8월 말, (늦은벼) 10월 중	총 비용	평균 7관문
조세[300평]	논: 상 580문, 중 390문, 하 360문 밭: 논 1/2	인부 품삯	3식 제공하고 (남녀 각) 20문
비축미=늬미(廩米) 저축미(儲蓄米)	저축(儲蓄) 제도 없음. 흉년 때 부사(府使)가 진출한 적 있음	산림 종류	소나무, 느티나무, 키가 작은 나무, 기타 잡목
산림 보존법	민간 소유라서 각자 보호	산림 벌채	자유롭게 벌채, 따로 정한 규칙 없음
연료 가격	빨나무 1짐 60문 숯 1짐 200문	연료 충족 여부	고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공급 충분하다고 함
소가죽	12매	소가죽 가격	100근 800문
소뿔	버림	소 도축[屠牛]	(1달) 12필, 2시(市)
소[活牛] 원가	대 13관문, 중 10관문, 하 4~5관문	육류 가격	관용 160문, 10문, 기타는 몇 전(錢)에 얼마씩 판매
목화 재배 호구	300여 호	목화 종류	보통
목화 재배 시기	3월 20일 무렵부터 말까	1호 수확고	12관문

	지		
1년 수확고	3천 6백관목(貫目)	배양법	풀을 태운 재에 똥 종류를 섞어서 파종 때 뿌릴 뿐
유지 관리 횟수	3회[度]에서 8회[度]까지	지질	흙모래
목화 가격	실면(實綿) 100문(文)에 3근	무명 짜는 호구	300여 호
면직 방법[織方法]		직공 구별	여자
1호 직조량	5필	1년 직조량	1,500필
1필 규격	길이 40자, 너비 8치	원방 원가(元方元價)	상 800문, 중 650문, 하 550문
수출고	6분통(分通)	포장법	새끼줄로 묶기
수출하는 곳	장에 가서 판매	직공 임금	80문
양잠 호구	300여(餘)	뽕나무 재배법	자연의 생육에 맡김
종류	산뽕나무와 그 밖의 1종이종(異種) 있음. 진주부(晉州府) 조사에 상세함	1호 누에 기르는 양	누에 1말 내외를 수확
누에 1되 가격		누에 기르는 시기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수면(睡眠) 상황		누에고치 실 뽑는 방법	살아 죽임. 따뜻한 물을 담은 통에 넣고 1인은 실을 뽑고 1인은 틀에 감는데, 따로 기계 없음
생사(生絲) 1근 가격	1관 200문	누에 1되 생사 양[生絲量]	
누에 1알 증량		누에 잡는 법	살아서 죽임
누에 100필과 뽕 비율		발생부터 누에고치 생성까지 일수	대략 60일
비단 짜는 호구	100여 호	1호 짜는 양	2필
1년 짜는 양	200필	1필 규격	길이 40척, 너비 8촌
1필(疋) 원가	상 1관 300문, 중 800문	수출하는 곳	지방 공급
종이 만드는[製紙] 지명	오묘(五卯) 3리	종이 만드는 호구	6호
종이 규격[紙長幅]	길이 3척 8분, 너비 2척	종이 두께	두꺼움
색깔 윤택 정도[色澤]	백색	1호 수확고	10,000매
1년 수확고	60,000매(枚)	오곡 포장법	5~6통(通) 엮어 거칠게 짠(가마니) 중앙을 교차하여 2단 묶음
가마니 용량	벼 1석 쌀 7두	운송법[運送法]	사람 등[人背] 소와 말 등[牛馬背]
운임	사람 1리 20문, 우마 40문	운송이 가장 편한 장소와 거리	흥덕(興德) 사포(沙浦)까지 거리 각 6리
시장 활성화 정도	조금 활발함. 사람이 1,000여 명 모임	개시 기일	읍내장[邑市] 2, 7일
관내 시장 명칭	용산장[龍山市] 1, 6일,	화물 종류	당목(唐木), 한랭사(寒冷紗), 견사[絹] 무명[木綿], 명주[紬], 베[布], 생베[生布], 일용품, 해초, 어류, 소금
수입품 기호	당목(唐木), 한랭사(寒冷紗), 가루 물감[染粉類]	1년 소금 소비	3,000석
1년 술 생산량	3,000석	산물	오곡, 무명, 목화, 누에고치[繭], 생사(生絲), 명주[紬], 생베[生布]
수입품 가격 <sup>20)</sup>	일번의원(一番義源) 2관 200문, 응태화인(鷹泰和印 <sup>21)</sup> ) 2관 100문, 한랭사(寒冷紗) 6관 200문, 일본 성냥 3문, 사포 소금[沙浦鹽] 1승 16문	수출품 가격 <sup>22)</sup>	쌀 20문, 콩 13문, 팥 18문
비고			

모든 지역에 동일한 형식의 조사표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조사표에는 기후, 논밭의 면적, 주요 생산품, 수출입품, 시장, 주요 수입품, 운송수단, 그리고 거리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마쓰다 고쥬는 향후 일본 상인들의 조선 내륙으로의 진출에 대비하여 시장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특성에 따라 인심(?)을 품평하기도 했다.

### 3. 마쓰다 고쥬의 여행기에 반영된 전라도 인식

광주에 대해서는 “인구가 조밀하여 상인이 폭주하는 고장이라”며 “수출입 화물의 운송이 빈번하지만, 일본 상인이 직접 상업 이익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이 구절에 그가 여행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그는 일본인들의 내륙 진출을 위한 목적에서 조선의 각지를 여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향후 어떠한 방향에서 일본 상인들이 진출할 것인가를 더 이상 서술하지 않고 있으나 그가 여행하던 1888년의 상황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그의 인식과 활동이 구체화 되는 것은 남평현 서술이다. 그는 다른 서술에 비해 비교적 조선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남평현에 대해 지세와 지형을 설명하는 것과 함께 남평현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본디 개시(開市) 당일이 되면 시장은 단지 관내에서 으뜸가는 장이라서 사도(四道)의 여러 상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 그 번성함이 도읍의 인구에 비하면 정말로 성대하다. 이 고장은 무명[木綿]의 출하 규모가 다양이며, 이로 말미암아 무명을 사들이려는 유력 상인의 발길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시장이 열린 날에 직접 방문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 남평현의 사람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람들의 기질은 조금 교활(狡獪)한 듯하지만, 아마도 지나치게 완고하고 우둔하여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기술하고 있었다. 그가 남평현의 전통시장에서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직접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하여 서술한 듯한 인상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서술은 나주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나주의 “개시(開市) 당일은 상인이 폭주하는 일이 많다. 목적으로 삼는 지역 특산물인 무명과 명주[紬]를 구매하

19) 원문은 ‘농업 상업이 반반’이라고 썼지만, 원저자가 본문에서 “상업이 5분의 1이고, 나머지는 농업”이라고 기술했음.

20) 원문은 ‘輸出品高’이지만, 기재한 내용을 보면 ‘수입품’에 관한 것임 [역자]

21) 원문은 ‘印’이 빠져 있음.

22) 원문은 ‘수입품 가격’이지만, 기재한 내용을 보면 ‘수출품’에 관한 것임 [역자]

려는 뜻이 있는 것이지, 따로 다른 물건의 판로는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수입 화물의 판로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퇴각의 걱정이 없이 전라도 중에서 쟁쟁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며 나주 지역의 "토양은 매우 비옥한 것 같은데, 물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모내기 철이 다가와도 미처 논밭 갈기에 착수하지 못한다. 보리농사는 이미 중간 단계에 이르러서 보리를 채취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구절에 나타나듯이 그의 주된 관심사가 조선의 전통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조선의 산업구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주의 표에서 비고에 "성냥은 그곳보다 남쪽은 모두 일본제를 써서, 중국제(성냥은) 더욱더 보이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일본제의 소비가 실제로 많다고 한다."고 하여 조선 내륙에 진출한 일본의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무안의 서술에서는 '천연두=두창(痘瘡)'에 대해 종이 깃발을 날리며 전파되지 않은 사람이 옮기고 있다는 관습을 기술하며 "정말로 사람 목숨이 어떤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인습(因習)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무정(無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즉 아직 근대 의료를 경험하지 않는 가운데 천연두를 전파하는 풍습(?)에 대해 무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영암에서는 "상업에 힘쓰는 사람은 겨우 전체의 10분의 1이다. 따라서 상업의 형세가 융성하지는 않다. 사람들의 기질은 완고하고 미천하며 어리석고 둔하여, 세상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기술함으로써 지역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쓰다 고죠의 서술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월출산에 대한 평가이다. "월출산(月出山)은 동쪽 서쪽 북쪽에서 멀리 바라보았을 때 언제나 여러 봉우리의 윗부분에 튀어나와 있었는데도 현지(現地)의 지층에 도착해보면 그렇게 높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곳의 지형을 말하자면 산의 형세가 동서로 길게 이어졌다. 북쪽으로 다가서면 산꼭대기가 모두 툭날처럼 생겨서 높이 솟은 바위가 여러 겹 포개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때로는 엮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때는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내는 것 같기도 하다. 그 기이한 광경을 거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깎아지른 바위 사이에는 모두 작은 돌이 깔려 있어서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다만 무너진 바위가 여기저기에 위로 튀어나와서 수십 길[仞]의 높이가 되었다.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니, 정말로 전라도 중에서 가장 빼어난 기이한 산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며 그 산세에 감탄하고 있다.

그의 서술 중에서 해남에서는 면화의 원료가 되는 뽕나무에 대해서는 유난히도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다. 뽕나무의 종류(산뽕나무)에서부터 방치하다시피 하는 생산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당시 해남에서는 누에치기를 하지 않고 나무를 생산해서 파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해남의 풍물 중에서 흰 소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기술하며 다른 지역(경상도와 충청도)에서는 보지 못한 "신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해남인들의 기질을 "온순하고 유연"하다며 "일본인과 익숙해지고 친해진"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가 어떤 뜻에서 사람들의 기질과 인심을 평가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일본인과의 관계, 즉 앞으로 일본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의 기질과 인심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조사표나 기술에서도 엿보인다. 마쓰다 고쥬는 각 고을의 생업을 기술하면서도 상업의 비율, 그리고 일본의 상품이 어느 정도 진출하여 조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냥 제품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당시 중국산과 일본산 성냥이 조선에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맺음말

마쓰다 고쥬의 여행기는 그가 부산의 상법회의소 소속의 서기로서 한반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기록한 자료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여행한 기록을 통해 1888년 조선 사회, 전라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특히 그가 향후 일본 상인들의 내륙 진출을 예비하며 쓴 기록물로 짐작되기에, 이 여행기는 향후 이 시기를 복원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 3 :**

## **여행기사 속의 면직물**

**조 광 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여행기사 속의 면직물

조광철(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 글은 마츠다 고조[松田行藏]의 <경상도 전라도 여행기사(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이하 <여행기사>로 줄여서 씀) 내용 중 전라도의 면직물 내용을 간추려 이 자료가 지닌 가치와 그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1. <여행기사> 속 면직물

마츠다는 1888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40여 일 동안 전라도를 여행했다. 그는 여행 중 전라도 32개 고을(전북 15곳, 광주 전남 17곳)을 답사했고 그중 31곳에 대해서는 인구로부터 상품 유통에 이르는 상세한 '조사표'를 작성, 이 책에 수록했다. 조사표에는 직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정보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특히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면직물이다.

### 2. 자료로서의 가치

<여행기사>에 수록된 지역별 조사표 31개 중 면직물을 언급한 것은 21개다. 이들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19세기 말엽 전라도의 면직물의 생산과 유통을 이해하는데 있어 높은 가치를 지닌다.

<여행기사>는 면직물 원료인 면화의 재배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전라도에서 면화 재배가 성행했다는 통념을 재확인시켜준다. 전라도는 곡물 생산으로 조선의 배를 부르게 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줬던 것이다.

그런데 전북의 조사지 15곳 중 5곳만 면화 재배를 언급한 반면 광주 전남은 조사지 17곳 중 16곳에서 면화 재배를 언급했다. 이는 전라도에서도 면화 재배가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해준다.

	구 분	지 역
전북 (14곳)	목화 면직물 언급한 지역(5곳)	남원 함열 임피 김제 고부
	언급하지 않은 지역(9곳)	운봉 임실 전주 익산 옥구 만경 금구 흥덕 고창
광주 전남 (17곳)	목화 면직물 언급한 지역 (16곳)	장성 창평 광주 남평 나주 함평 무안 영암 해남 진도 강진 장흥 보성 낙안 순천 구례

언급하지 않은 지역(1곳)	광양
----------------	----

※ <조사표>가 수록된 지역 31곳에 한함.

면화 재배지가 동시에 면직물 생산지이기도 했다는 점도 보여준다. 대부분 목화 재배농가 수와 면직물 직조농가 수가 일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면직물 직조의 주역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면화 재배와 면직물 직조에는 엄청난 규모의 가구들이 참여했다.

지역	남원	나주	순천	남평	광주
인구(호)	10,000	6,000	12,000	2,700	5,600
목화 재배 가구(호)	6,500	6,000	5,000	1,800	5,600
면직물 직조 가구(호)	6,500	6,000	5,000	1,800	5,600

면직물 생산 규모도 말해준다. 순천은 연간 20만필, 남원은 13만필이었고 수만 필씩 생산하는 지역도 부지기수였다. 조사된 전라도 21개 고을의 연간 생산량은 79만여 필이었고(전남 64만 4000여 필, 전북 14만 6000여 필), 고을당 평균 생산량은 전남 4만필, 전북 3만필이었다.

지역	남원	나주	순천	해남	광주
호당 연간 직조량(필)	20	16	40	28	14
연간 직조량(필)	130,000	97,152	200,000	56,000	78,400

면직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도 전해준다.

우선, 면화·면직물 생산지와 거래 중심지가 분화돼 있었다. 전라감영 소재지이자 호남 최대의 상거래 중심지인 전주는 면화 및 면직물 거래가 활발했지만 그 재배나 직조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거나 비중이 낮았다.<sup>23)</sup>

비슷한 상황은 남평에서도 발견된다. 남평은 영산강 유역 최대의 면직물 거래시장이 열린 곳이었지만 이곳 역시 면화 재배와 면직물 생산량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또한 일부 소량의 면직물 생산지에서는 생산된 면직물을 지역 내 자급용으로 소

23) 다른 자료들에서도 전주는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면화만을 생산했으므로 전남지역에서 목화와 면직물을 들여와야 했고 특히 광주·나주산 목면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다(岡崎唯雄, <朝鮮內地調査報告>, 1895, 119쪽; 月田藤三郎, <韓國に於ける棉作調査>, 1905, 64쪽).

비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직물은 역외(域外), 즉 전라도 밖으로 팔려나갔다. 역외 판매비율은 생산량의 70% 정도였다. 그리고 전라도 면직물은 주로 경기·충청·경상도로 팔려나갔다. 1904년 츠기다 후지사부로[月田藤三郎]가 서울에서 흥양(지금의 고흥)·순천·나주산 면직물을, 대구에서 남원산 면직물을, 부산에서 강진산 면직물을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기록한 것도 <여행기사>의 내용과 상통한다.<sup>24)</sup>

그런데 면직물의 최종 행선지 중 강원도가 포함된 지역도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런 곳이 없고 광주 전남에서만 이런 기록이 발견된다. 창평·(광주)·함평·무안·해남·순천 등이 그런 곳인데 흥미롭게도 대개 연안지역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 지역의 면직물이 해상을 통해 경상도를 경유, 강원 내지 함경도까지 수송됐음을 암시해준다.

지역	남원	나주	남평	순천	광주
역외 유통 비율(%)	80	100	80	90	80
행선지	경상, 충청, 경기	경기, 충청	충청, 경상	경기, 강원, 경상, 충청	8도

이와 관련해 1900년대 츠기다 후지사부로는 <한국의 면직조사[韓國に於ける棉作調査]>에서 전라도 면직물과 강원·함경도의 명태를 매개로 한 국내 교역을 언급한 바 있었고,<sup>25)</sup> 1960년대 가지무라 히데키[楳村秀樹]는 논문을 통해 이러한 국내 교역을 보다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sup>26)</sup>

이밖에도 <여행기사>에는 깨알 같은 정보로 가득하다.

전라도에서도 면직물의 규격은 지역마다 달랐다. 이런 규격 차이는 면직물을 오로지 손으로 직조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24) 月田藤三郎, <韓國に於ける棉作調査>, 74쪽.

25) 츠기다는 위의 조사보고서(70쪽)에서 전남산 면직물은 한선(韓船)에 실려 함남으로 수송되고, 돌아올 때 그곳의 특산 명태를 싣고 온다고 했다. 또한 68쪽에서는 광주 상인들이 등짐으로 조면(縲綿)을 지고 전주와 공주로 가서 팔고 강경과 한산에 들러 마포(모시?)를 사서 돌아온다고도 했다.

26) 이 논문은 “이조말기 조선의 섬유제품의 생산과 유통 상황 ; 1876년 개국 직후의 면업의 데이터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1968년 발표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조말기(개항 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구조”라는 제목으로 <한국근대경제사연구>(사계절, 1983)에 번역, 소개된 바 있다.

지역	남원	강진	해남	순천	광주
길이(자)	40	40	30	40	40
폭(치)	7	6	6	7	8

그럼에도 대체로 면직물은 길이 40자(약 12m) 내외, 폭 7치(약 20cm) 내외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1평이 채 못 되는 넓이(2.4㎡)의 천이 조선시대 성인 옷 1벌을 만드는데 소비됐던 셈이다.

면직물의 지역별 제조단가(원문에서는 '元方原價'로 표현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생산량이 많은 지역(남원·순천)과 그렇지 않는 지역, 거래량이 많은 지역(남평)과 그렇지 않는 지역 간 제조단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는 제조단가가 거래시세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행기사>에서 지역별 거래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반면 <여행기사>는 제조단가에서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려주고 있다. 노임 비중은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지역	남원	나주	순천	광주
제조단가 대비 노임 비중(%)	10	30	?	50
비고	품질과 상관없이	중등품 기준	1필 직조에 소요되는 목화	중등품 기준

그런데 제조단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다.

또한 남평·순천 등 상당수 지역에서는 1필을 짜는데 들어가는 목화의 양, 즉 현물로 임금을 지급됐다고 했다.<sup>27)</sup> 왜 이런 관행이 생겼고 특정지역에서 이 관행이 지켜진 이유도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면직물이 농가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마츠다가 벼와 잡곡 생산보다 면직물 직조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도 그것이 농촌경제와 농가생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일 것이다(역설적으로 직물 수요와 유통이 많았다는 것은 일본 직물의 시장 침투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한편 마츠다의 조사 관점이 무엇이었던 건 당시 면직물 생산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

27) 月田藤三郎, <韓國に於ける棉作調査>(1905)에 따르면 면직물 1필을 짜는 데는 실면(實綿) 기준으로 7kg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라 생계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 동시에 매우 절박한 - 생계수단이었다는  
인상도 준다.<sup>28)</sup> 광주 수완지구 출신의 박노면(1860~1913)의 시에서 이런 절박감이  
느껴진다.

### 베 짜는 집

집집마다 창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여인네는 무명실을 잇고 있네  
날이면 날마다 빛 독촉과 세금 독촉  
내일 아산장(광주 비아장의 별칭)에선 무명베 값이 어떨는지<sup>29)</sup>

### 3. 자료 속 숫자의 이해에 있어 주의할 점

<여행기사>의 최대 장점이라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숫자일 것이다. 일단 숫자는  
생산·유통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sup>30)</sup> 그런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자칫 그 숫자에 현혹되기 쉽다.

이를테면 <여행기사>는 1888년 광주인구가 5,600호였고 이들이 모두 목화 농사  
를 지었으며 동시에 면직물을 짚다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마츠다가 말한 광주인구  
5,600호는 어떤 근거로 말한 것일까? 1899년 간행된 <광주읍지>를 보면, 광주인구  
는 원래 7,000호였으나<sup>31)</sup> 1879년 1,500여 호가 감소해 5,600호가 됐다는 구절이 보  
인다. 공교롭게도 이것은 <여행기사>에서 말한 광주의 인구수와 일치한다. 대체로  
<여행기사> 속 인구수는 <광주읍지> 또는 호구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사람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10년 조사·작성한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에는 광주인구가 1만  
6,000호로 나온다. 20여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로 보인다. 아마도 <여행기사> 속 5,600호는 과소 집계된 인구수로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1888년 광주의 '모든' 집이 면직물을 짚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  
은 과장된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다른 고을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여행기사> 속 여러 숫자를 이해함에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  
하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이것이 광주 전남에서 엄청난 비율의 농가들이 면직물 직조에 종사했다는

28) 1905년 남평에서 면직물 1필의 가격은 대략 쌀(현미) 1말 가격과 얼추 비슷했다

(三成文一郎 등,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 慶尙道 全羅道>, 1905, 517쪽).

29) 박노면의 문집 <상고헌유고>에 실려 있다.

30) 조선시대 <읍지>, 19세기 초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1919년 간행된 토지임시조  
사국의 <조선지지자료> 등에서 해당 지역 생산품의 품목 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의 목록만을 소개한 것을 생각해보라.

31) 100년 전 자료인 <호구총수>나 <여지도서>에서 광주 인구는 8,000호였다.

사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여행기사> 속 통계 숫자는 개략적인 추이와 상황을 나타내는 어림수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림수가 당시 시대상을 얼마만큼 의미 있게 전달하는 것인지는 기록의 전후 맥락,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아래 표에 실린 사례 참고).

<여행기사>에서 “1888년 광주 인구의 2/3가 농업에 종사, 1/3이 상업에 종사한다.” 라고 한 기록의 의미 : 1910년 <민적통계표>와 비교

광주군 전체	16,482호	농업 14,115호 (86%) 상업 1,519호 (9%)	읍내	2,465호	농업 1,586호 (64%) 상업 570호 (23%)
--------	---------	--	----	--------	--

※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전주와 남평에 대한 <여행기사> 속 전주와 남평 기록을 <민적통계표>(20여년의 시차가 있음)와 비교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여행기사>에 전주의 “상업종사자는 (읍내) 주민의 1/2”이라고 했으나 <민적통계표>에는 1/10에 불과했고 남평의 “상업종사자는 (읍내) 주민의 1/3”이라고 했으나 <민적통계표>에는 1/1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기사>의 기록을 존중한다면 생각 이상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부업으로 장사에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여행기사> 중 이런 구절도 보인다. “진도 사람들은 농사일이 한가하면 장사를 하거나 고기 잡이를 한다.”

무엇보다 <여행기사>는 여행기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보고들은 내용이나 감회를 기록하지 않고 숫자를 버무려 쓴 여행기라는 점에서 독특하지만, 바쁜 여정 중에 수집한 정보나 구술을 정리한 인상을 주므로 이 자료만으로 19세기 말엽 전라도의 면직물 등 경제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마츠다는 전라도 여행 중 10여 군데에서 오일장을 언급하는데 다른 자료들과<sup>32)</sup> 비교했을 때 상당수 장날에 차이가 있어 실제 오일장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한 마츠다의 40여 일에 걸친 전라도 여행 중 거래 광경을 목격한 곳은 구례 한수촌이 유일하다. 한수촌에서 정기시장이 열렸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기록이 유일한데 경제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여행한 사람이 그토록 많은 날을 여행하며 오일장을 거의 목격하지 않았던 것은 이상하다.<sup>33)</sup>

32) 다른 자료들이란 <동국문헌비고>(1770), <임원경제지>(19세기 초), <조선지지자료>(임시토지조사국, 1919)를 말한다.

33) 1884년 미국 공사관 무관 조지 포크는 13일 동안 전라도를 여행하면서 삼례장 ·

이처럼 <여행기사>를 읽고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의아한 사실이나 유념할 사항이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여행기사>는 조선시대 '목화왕국' 전라도의 상황을 가장 치밀하게 묘사·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

남평장·담양장 등 세 장날을 목격한 바 있다(〈화륜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 알파미디어, 2021).



**주제별 토론 1 :**

**여행기로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차 철 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 「여행기로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토론문

차철욱(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학술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해, 개항기 호남의 상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성일선생님은 조선후기 한일무역 관련으로 많은 배움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학술행사를 통해 새로운 주제로 만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호남의 전근대와 근대가 존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글이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무라 겐지의 연구에 의하면 개항 이후 식민지화로 가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조선 지방조사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자료와 연구에 의하면 청일전쟁 이전에는 부산상법회의소, 외무성,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중국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찰 및 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農商務省, 遞信省, 大藏省 등 중앙부서,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사가, 시마네, 카가와 등 조선과 가까운 서일본 지방관청, 상업회의소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각 기관의 이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였다.<sup>34)</sup>

1879년 설립된 부산상법회의소는 회원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881년 『朝鮮新報』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번 학술행사의 주요 분석 자료인 「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竝ニ農商況調査錄」(이하 조사록)은 부산상법회의소의 정보 수집활동을 일환으로 조사된 것이다. 조사록 분석을 위해 조사와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인 1888년 무렵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개항 이후 10여 년이 지났고, 부산, 원산, 일본 세 곳이 개항되었으나 개항장 중심의 교류가 진행되었을 뿐이고, 또 내지통상이 허용되었으나 미개항장이나 내륙에서의 일본인들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전제로 분석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으로 한양에서의 정치 외교적 사정은 급변하고 있었지만,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록에는 '내지행상인' 항목을 두고 있는데, 남원, 전주, 광주, 나주, 진도, 강진, 장흥 등에 포함되어 있다. 광주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해당 내용이 없다. 대도회인 전주의 사례를 보면 "행상을 위해 오는 외국인이 있지만 단지 통행하는데 그친다"고 해 대체로 내지 외국인 행상이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태 산지인 진도에 일본인 상인이 왕래했다는 점은 일본 수출품 수집이 필요할 때 외부 상인의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무렵은 아직 호남지역이 일본 혹은 청나라와의 경제관계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군사적 지배력이 보장받은 후 일본인 상인들의 내륙 행상도 좀 더 활발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34) 木村健二, 「明治期日本の調査報告書にみる朝鮮認識」『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1,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 367-378.

이런 분위기를 전제로 당시 마쓰다 고죠의 여행기에 드러난 조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일본인 연구자들은 편견이 없었다고 한 반면 정성일선생님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인) 인식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일전쟁 이전, 아직 조선에 대한 지배력이 결정된 상황도 아닌 시점에서 조선인/일본인 양쪽 모두 민족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시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부산에서도 양측의 분쟁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일본인 상인이 조선인에게 선금금을 제공하고 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인이 구포를 방문했을 때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공격한다. 경제적인 문제이지 민족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특히 내륙에서 조선인에게 일본인은 낯선 이방인이었고, 반면 일본인 상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은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표 '人氣'에 보이는 '교활' '標悍' '頑陋' 등 부정적인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溫良(和/柔)' '朴直' '忠直' 등 긍정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표 1>의 부유한 정도와 관련해 원문과 번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상', '중', '하' '중상' '중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준이 애매하다. 원문에서 대체로 '富裕'라고 표현하면 '상'으로, 貧富相半/相夾이면 '중'으로, '貧'이 포함되면 '하'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고창은 '부유'인데 '중'으로, 함평, 해남, 보성은 '稍富裕'인데 '중상'으로, 반면 장성은 '초부유'인데 상으로, 순천과 구례는 '富裕'인데 '중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반면 무안은 '稍貧'인데 '중하'로 분류되어 있다. 원문의 표기에 따른 번역의 기준이 섞여 있다.

'빈부 정도와 복장상태'에 대해 정성일선생님의 일본산 직물류 판매 가능성 타진이라는 해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복장 상태만이 아닌 빈부 정도와 같은 항목으로 만든 것은 호남 각 지역민의 경제력 파악이 아닐까 싶다. 당시 일본인은 개항장을 통해 다양한 잡화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다. 외무성 보고자료인 『通商彙纂』에 게재된 「朝鮮國全羅道巡廻復命書」(28년 5월 28일, 재부산영사관보고)에 보면 "일본 상품인 도기, 철기, 석유 등은 전라 남서해안을 제외한 내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무거워 운반이 불편해 일본 상인이 판로 확대가 어렵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목포가 개항된다면 석유, 도기, 철기 등 잡화의 판로 확장이 빨라질 것이라고 목포 개항을 기대하고 있다. 즉 당시 부산상법회의소의 눈에는 일본 수입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호남인들의 구매력에 관심이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다음은 조사록을 통해 호남지역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사 항목은 기본적으로 「朝鮮國慶尙忠淸江原道旅行記事 農商調査表付」(이하 조사표)와 동일하지만 생산물의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다. 1895년 외무성 보고자료인 「朝鮮國全羅道巡廻復命書」(28년 5월 28일, 재부산영사관보고)에 전라도 지역에서 외부로 보내지는 생산품 가운데는 쌀, 대두, 목화, 양잠 등이 있지만, 수산물인 전복, 해삼, 김, 천초 등이 기술되어 있다. 조사록에는 7년 뒤 조사하는 항목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주목할 상품이 확인된다. 특히 소금(옥구, 흥덕, 나주, 함평, 해남, 강진, 장흥, 보성, 낙안, 순천, 곤양), 김(진도, 강진), 광산(보성), 제지(광주, 보성) 등 호남지역 생산



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금과 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산지, 생산 방식과 양 등이 기록되어 있다. 진도의 경우 김 매수를 위해 일본인 상인이 왕래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록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산품의 유통이다. 이와 관련해 수출지, 포장법, 운송법, 운송지역과 거리, 해안까지 거리 등이다. 대체로 전근대 교통망 체제 속에서 상품유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안까지 거리'가 포함된 것은 부산, 인천 등 전라도에서 가까운 개항장과의 유통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은 호남지역의 전근대 교통망이 서서히 근대 유통망에 편입되어 가는 교통체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쓰다 고쥬가 방문한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도회였던 전주에서 2일, 나머지는 대체로 1일이다. 심지어 지나쳐 버리는 고을도 있다. 즉 체류기간이 1-2일에 지나지 않는데, 조사록에 표기된 마을의 호수, 거리, 고개명, 도로 사정, 표에 기록된 내용 등을 조사할 수 있었을까.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마쓰다 고쥬가 조사 이후 4-5개월 만에 책을 마무리할 정도로 시간여유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현장 조사를 세밀히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 조사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그러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주제별 토론 2 :**

**구한 말 일본인의 시선에 반영된  
전라도**

**이 향 준**

(전남대학교 교수)



## 「구한말 일본인의 시선에 반영된 전라도」 토론문

이향준(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이 글은 1891년 도쿄에서 간행된 「경상도 전라도 여행 기사와 농업·상업 현황 조사록」 가운데 전라도 부분의 개괄적 내용과 그 현재적 의의를 소개하는 것이다. 원래 부산상법회의소 서기인 마쓰다 고조[宋田行藏]가 편집한 이 책은 1888 5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의 정상·전라 두 지역의 농·상업의 현황을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다.

경상도를 제외하고 전라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마쓰다 고조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함양을 거쳐 5월 12일(일본력) 전라도 운봉현으로 접어들었고, 각 지역을 둘러 본 후 광양현을 거쳐 6월 8일 다시 하동부로 접어들었다. 마쓰다 고조가 거쳐간 각 지역은 구체적으로, 운봉현, 남원부, 임실현, 전주, 익산군, 함열현, 임피현, 옥구현, 전주, 만경군, 김제군, 금구현, 태인현, 고부현, 흥덕현, 고창현, 장성부, 창평현, 광주, 남평현, 나주, 함평현, 무안현, 영암군, 강진현, 해남현, 진도군, 강진현, 장흥부, 보성군, 낙안군, 순천부, 광양현 등이다. 사실상 목포와 군산, 여수 등 해로를 통해 접근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전라도의 내륙의 주요 행정 구역을 거의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기후와 넓이, 호구에서 빈부의 정도, 생업 논밭의 가격 과 농사법, 필요한 비용 및 곡식의 수확량 및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상업적 기준에 의해 치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19세기 말 전라도 남부 지역의 생활 경제상을 섬세하게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가 “기록을 통해 1888년 조선 사회, 전라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고, 따라서 “향후 이 시기를 복원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논평자로서는 이러한 잠재적 결론이 함축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재의 논의 너머로 확장 가능한 논의 지평을 스케치하기 위해 다음 두 어 가지를 덧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책의 전반적인 서술 체제는 셋으로 구별된다. 첫째 저자는 먼저 해당 지역의 행정 지리적 특징을 개괄한다. 둘째 본인이 머물거나 지나가는 곳으로 추정되는 특정 지역의 정보와 그곳 주민들로부터 구술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봉현을 지나 남원부로 접어들면서 그는 여원재[女院峙] 인근의 지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여원재가 있고, 주막이 있다. 호구는 10여 호이다. 이곳과 운봉현 사이는 거리가 1리 정도 되는 데 마을이 한 곳도 없다.” 오늘날 여원재는 남원시 운봉읍과 이백면 양가리 사이를 잇는 해발고도 480m의 고개인데, 이성계의 꿈속에 나타나 왜구와 싸울 전략을 알려주었다는 설화에서 유래된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제시된 것과 같은 농·상업현황표가 배치되어 있다.

역시 가장 흥미로운 자료는 세 번째 현황표이다.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에 따라 흥미로운 비교 검토의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용성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모든 지역의 표에 공통적으로 소(牛)에 관한 항목들이 소의 원가, 소가죽, 소뼈, 소의 도축 등으로 세분화되어 기록되어 있다. 운봉현의 경우 큰 소는 15관문에 해당하고, 남원부는 17관문이며, 임실현은 16관문이고, 전주부는 20관문이다. 이런 차이들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소를 구입하고 도축해서 살을 비롯한 각종 부산물을 유통 소비하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운반하고, 무엇을 생산해서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남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의 상업적 가치를 저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의도가 담겨있는 대목인데, 표의 거의 모든 항목들은 바로 이런 의도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비교 검토는 지역별 공통 항목의 차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쓰다 고죠의 표 자체 내의 항목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논밭’이라는 항목에 각 지역의 농지의 대략적 규모가 적혀있고, 또 다른 항목에서는 ‘연간 술 생산량’이 존재하고 있다. 운봉현의 경우에는 1,300여결에 매년 술 1,000석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남원부는 9,000여결의 농지에 매년 20,000석이다. 전주는 7,600여결에 매년 10,000석이다. 운봉의 경우는 농지 대 술생산량의 비율이 1:0.76의 비율로 술이 생산되고 남원은 1:2.2이며, 전주 1:1.4이다. 물론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의 전체적인 곡물 생산량을 함께 고려해야겠지만, 이런 편차의 존재는 농지와 술생산량의 평균값과 각 지역의 실제 생산 정도가 이 평균값과 가지는 차이에 우리가 고려할 만한 어떤 상관관계들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강하게 함축한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사회의 제반양상을 망국에 뒤이은 일제 식민지의 영향으로 강하게 잊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과거의 기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고, 남북의 분단과 6.25을 지나고서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통해 현대 한국인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여태껏 우리 자신들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제반 조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몇몇 이유로 인해 우리들에게 과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리게 만드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쓰다 고쥬의 이 기록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망국 직전 쇠망기, 즉 조선 후기의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기록의 의미와 역사적 함축은 마쓰다 고쥬의 진술과 표의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것을 재발견해서 우리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의 지적 능력과 소양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의 발굴과 우리말로 옮긴 번역자들의 노고는 이런 지적 활동을 만나고서야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별 토론 3 :**

**여행기사 속의 면직물**

**임 선 화**

(광주교육대 강사)



## 「경상도 전라도 여행기사 속 면직물」 토론문

임선화(광주교육대 강사)

마츠다 고조(松田行藏)는 부산상법회의소 서기였다고 전해진다. 부산상법회의소 서기로 재직 중인 1888년 5월 3일부터 6월 12일경까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여행하며 농업 경영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가 『경상도 전라도 여행기사 병농상황조사록』이다. 1885년 일본인 상인들의 내지 행상이 가능해졌고, 이에 내륙의 상업 정보가 필요하였기에 부산상업회의소 직원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내륙의 정보를 조사하고 쓴 보고서인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졌던 관심사는 미곡과 면화나 면직물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일본은 쌀부족국가였기에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쌀을 불법적으로 유출해갔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방 수령들이 방곡령을 종종 내렸던 것이다. 미곡과 함께 그들이 필요하였던 것이 면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 주도의 산업혁명을 수행하면서 첫 걸음이 면직물 관련 공업이었다. 면직물 관련 원료의 수급도 필요했고, 면직물을 소비할 소비시장도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고, 그런 정보를 마츠다와 같은 사람들이 수집했을 것이다. 특히 상업회의소 직원이었기에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맞물리는 한국 남부지방 내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츠다는 한국의 남부 내륙 지방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부산상업회의소의 일본인들을 위한 정보 수집은 일본인들의 상권 확대를 끝낸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일에 유효했을 것이다. 마츠다의 글을 보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주도 면밀함을 보인 것이 개항 이전부터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개항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고, 이후에는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신문 자료를 보면 면화와 미곡 생산을 독려하는 기사가 매우 많이 나오는데 전남지방이 그만큼 일제의 수탈대상이었음을 확인하는 기사이기도 하다. 그 시작점에 한국의 상황을 수집하였던 마츠다와 같은 이들이 바로 첨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광철 선생님의 글은 여행기사의 내용에 대한 소개를 했다. 내용에 대한 소개에 그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정보가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더 깊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15회 학술심포지엄자료집 <비매품>

지은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김덕진  
펴낸일 . 2022년 11월 16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2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민간단체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우편번호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 062)234-2727 전송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http://www.rcef.or.kr) / E-mail : [r-cultural@hanmail.net](mailto:r-cultural@hanmail.net)